부산가톨릭대(총장 홍경완 신부) 임상병리학과(학과장 김성현 교수)는 4학년 김지혁 재학생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주관하는 2024년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RI)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밝혔다.부산가톨릭대는 전국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 보건·의료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학과 간 강점을 융합한 미래사회안전망확보융합전공, 과학수사융합전공, 디지털의과학융합전공 등 다양한 융합전공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본 전공 외에 추가적으로 융합전공을 이수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래 진로를 위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시험에 합격한 김지혁 재학생은 임상병리사가 진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동기부여 해주신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면허 관련 수업을 제공해 주신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학과 교수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부산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는 감염성과 비감염성 질환 및 의료 수요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재양성을 통해 전문 임상병리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 배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학과 모든 전임교원이 학부와 대학원이 연계된 차세대 진단검사 및 의생명과학 분야의 후속세대 육성에 힘쓴 결과로 현재 약 20여명의 임상병리학과 학부/대학원 졸업생들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됐으며, 그 외에도 전국 의료기관 및 수탁 검사기관, 국가 연구 기관,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체 등 스마트헬스케어 및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